서울 구민신문

(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4면)

박지선 송파구의원

성내천 관리시설 운영실태 현장점검



박지선 송파구의원(진보당, 위례동·장지동)은 지난 11월 4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성내천 일대 하천 관리시설의 운영 실태와 근로환경을 점검하고, 관리인력 및 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.

박지선 의원은 "성내천은 많은 주민들이 산책과 여가활동을 위해 찾는 생활공간으로,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"며 "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하천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다"고 말했다.